



“2008년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대응을 통해
주요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매출과 수익
모두에서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창조적 혁신과 진취적 도전으로 진정한 초일류 기업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객, 주주 여러분

지난해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1997년 외환위기와 비견될 정도로 매우 어려움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 더욱이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심화와 환율 불안정,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체감 상황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대응을 통해 주요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주력함으로써 연결 기준 사상 최고 액인 121조 2943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연간 5조 5260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경영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2008년 성과와 분석

반도체, 휴대폰, LCD, TV 등 주요 사업이 지속 성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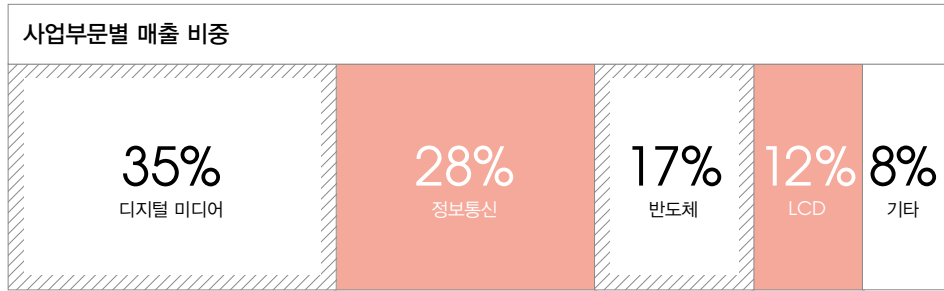
반도체 부문의 메모리 사업은 DRAM과 낸드 판가가 급락하였으나,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사와의 격차를 계속 확대하였으며, 비메모리 사업도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휴대폰 부문은 스마트폰 등 신제품 라인업 강화와 신형시장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이 주효하며 판매량이 2억 대에 근접하는 등 고성장을 지속, 1위 도약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CD 부문은 하반기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가운데서도 차별화된 기술과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이익률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후발 업체들과의 격차를 확대하고 대형 TV 패널의 시장지배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TV 사업은 악조건 속에서도 LCD TV 판매량이 전년 대비 54% 증가하면서 시장점유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LCD TV와 평판 TV, 나아가 TV 전 부문에서 3년 연속 판매량 세계 1위를 유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 업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창조경영을 통한 초일류 도약의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창조경영(Innovation to Creation)을 통한 초일류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인재 확보와 창조적인 R&D, 차별화된 브랜드 강화를 중심으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인력을 전 임직원의 40% 수준까지 확충하였으며, 2008년 미국 특허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29% 증가한 3515건을 기록하며 2위 자리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08 하계 베이징 올림픽의 공식 파트너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시장과 고객 중심의 다양한 프리미엄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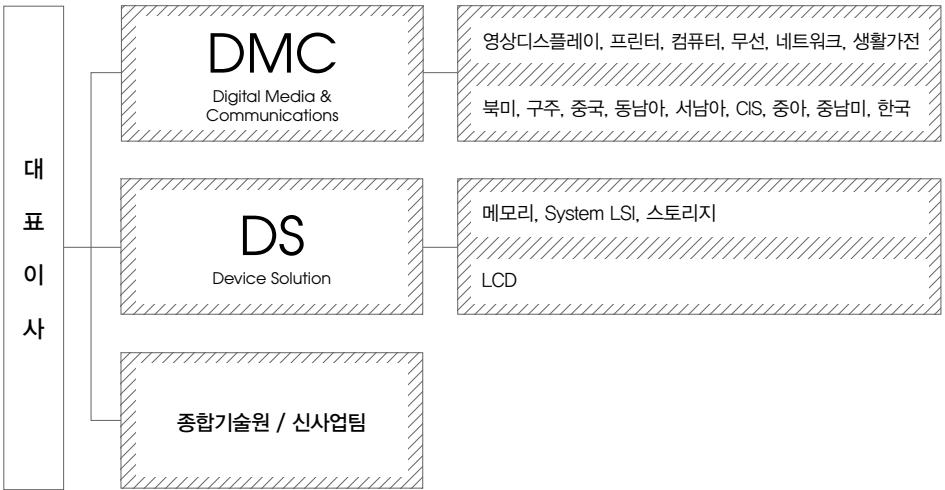
주주가치 증대, 녹색경영 실천을 위한 노력을 적극 펼쳤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된 가운데서도 밸류에이션(Valuation) 제고 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IR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08년 주요 글로벌 증시와 IT 업체 주가가 대부분 전기 말보다 50% 이상 폭락한 것에 비해 삼성전자의 주가는 19% 하락에 그치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국내외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녹색경영 실천을 위해 사업장 환경안전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린피스가 주관하는 전 세계 친환경 전자기업 평가에서 2위에 선정되어 그 노력을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 2008년 조직 · 연결실적 기준

삼성전자 조직도



“주력사업의 리더십과 성장육성사업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창조적 혁신을 가속화하여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진정한 초일류 기업을 향해 새롭게 도약하겠습니다”

2009년 목표와 전략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의 시간 속에 있으며, 경기 회복 여부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IT 산업도 수요 예측과 계획 수립이 힘들고, 생존 차원의 업체간 주도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큰 시련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과거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창조적 도전정신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 경험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성과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고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의 비효율, 중복,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기존의 원가절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강화와 가치혁신(Value Innovation)을 동시에 추진하여, 누구도 모방하기 어려운 삼성전자만의 가치 창조(Value Creation) 활동을 정착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제품 개발의 아이디어 창출부터 출시까지 모든 부서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독보적인 스피드와 효율을 갖추는 등 내부 시너지를 강화하고, 위기요인을 신속하게 감지·대응할 수 있는 전사 차원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주력사업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성장육성사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TV, 휴대폰 등 세트(Set) 부문은 극한의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모든 부문에서 시장 1위에 도전하고, 반도체, LCD 등 부품사업은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성장육성사업인 프린터, 노트북 PC, 시스템 공조 등은 B2B 거래선 확대, 디자인 차별화, 해외영업 기반 확충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본격적인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창조적 혁신 가속화, 신사업 육성을 통해 미래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일류는 의지와 열정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었으나, 초일류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일하는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임직원 모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끊임없는 자기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문화를 발전시키고, 경쟁사가 모방하기 어려운 창조적인 방법과 툴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성장 모멘텀을 지속 확보하여 차세대 신기술과 신수종 사업을 차질 없이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고객, 주주 여러분

창립 30주년을 맞았던 10년 전, 삼성전자는 생존 차원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글로벌 일류 기업의 기반을 마련했었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그때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 다시 한 번 위기의식과 도전정신, 창의적 사고로 무장하여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초일류 기업이라는 꿈에 한 발 더 다가가고자 합니다. 삼성전자의 모든 임직원은 한마음 한 뜻으로 일치 단결하여 삼성전자가 세계 모든 고객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진정한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도전에 고객과 주주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Yoon Woo Lee

이 윤 우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